

가을밤 수놓은 정읍천변 빛·물·음악

1~14일 비대면 정읍천 빛축제

형형색색 LED 경관조명 설치

가을밤 낭만 잊지 못할 추억 선사

정읍천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가을빛 물든 정읍천, 희망을 빛나다”라는 주제로 빛과 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 이벤트 ‘정읍천 빛 축제’가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의 포토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올가을을 추억할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감성의 가랜드길

함께하는 행복의 빛과 벚꽃·단풍·달 등의 모양으로 꾸며진 사랑의 빛, 라이트 불과 파도처럼 일렁이는 희망의 빛은 시민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은 생략하고 비대면 위주의 전시 관람 형태의 축제로 열린다.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며, 1일 오후 7시에 사전 제작한 개막 점등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해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장에 방문한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LED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정읍시 SNS에 게시된 점등이미지 중 원하는 이미지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정읍천빛축제

#정읍천온라인점등식 태그 후 본인 소원과 함께 게시하거나, 행사장 방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증정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과 방역을 위해 종합안내소를 설치했다. 또 방역 인력을 투입해 행사장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 출입로 곳곳에 080 안심콜 이용과 방역 수칙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배너, 손소독제 등을 설치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지난 28일 이환주 남원시장과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어현농공단지에서 에코에너지원의 남원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 어현농공단에 ‘에코에너지원’ 공장

아시아 최대 규모... 목재펠릿 생산

공장인 ‘에코에너지원’이 남원시 어현농공단에 들어섰다.

에코에너지원(대표이사 유성민)은 우드펠릿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기업이다. 2016년 설립돼 지난해에만 167억원의 매출을 올린 우수기업이다. 지난 3년간 투자협약과 입주계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날 준공된 남원공장을 위해 에코에너지원은 750억원을 투자했으며 지역에서 60여명

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날 준공된 공장은 3만9650㎡의 부지에 3255㎡의 부대시설을 갖춘 1차 공장이며 향후 2차 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아시아 최대 목재펠릿 기업으로 부상한 에코에너지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에 들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천 빛 축제’가 1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정읍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형형색색 경관조명으로 장식한 천변길. <정읍시 제공>

익산시, 활성화탄 섬유 활용 향토산업 집중 육성

2024년까지 143억원 기술 지원

소방·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나서

익산시가 섬유 활성화탄을 활용해 향토산업인 섬유 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

익산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활성화탄 섬유소재 활용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압력과 온도를 가해 탄화한 섬유를 활용, 필터나 위생 용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143억원을 투입해 활성화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활성화탄 섬유 상용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등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활동을 병행한다.

이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활성화탄 섬유의 내화학·열·전기적 특성을 활용, 소방용·군용·의료용 다기능 섬유 제품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섬유산업 고도화 기반 확충은 물론 관련 소재의 생산과 원료 표준화, 응용제품 개발 등의 구축으로 섬유기업의 신활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반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를 마친 상태”라며 “2022년 상반기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우선 순위가 배정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5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운영

순창군이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을 적용,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3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군산시 ‘상권르네상스’ 구도심 활성화 도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기부 국가 공모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사업은 ‘다시 살아나는 장터’, ‘새롭게 변화하는 장터’,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라는 3개의 주제로 17개 분야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중앙상가에 위치한 순대국밥 특화거리의 가게 앞 방치된 물건을 정리하고 고객선을 설치하는 개선사업과 점포 메인 간판 정비를 포함한 외부 도색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고자 추진된 ‘군산장터거리축제 제

1회 국밥DAY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뤄지고 있다.

또 신영시장 친환경 생선건조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의 협업을 통해 막바지 작업 진행 중이다.

신영시장의 대표상품인 박대와 반건조 생선의 전용 건조장 건립을 통해 수산물에 테마로하는 즐김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이미지인 ‘시간’을 중심 주제로 번성했던 구시장길의 역사가 녹아있는 점포나 오랜 기간 비어 있는 가옥 중에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창업희망자에게 5년간 무상임대하는 ‘거점공간 육성사업’은 6개소의 49명이 참여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하수도 시설 확충 국비 117억 반영

고창군의 내년도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국비 예산 반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의 하수도 시설 확충에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0건 등 국비 117억4500만원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94억원),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47억원),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40억원),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62억원) 등 총사업비 243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올해부터 각 사업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하수도 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p>미스트크리너</p>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p>더스트크리너</p>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p>전기집진기</p>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p>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p>		
<p>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p> <p>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리온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p>		